

“영석고 지역명문으로 키워나가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장학금 전달하며 당부
안채란 前이사장 치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의정부 영석고를 찾아 안채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4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불교 종립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학교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에게는 직접 장학금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의정부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교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 의정부 사업연합회장 호산스님 등도 함께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은 학교 설립자인 안채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을 치하하고,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학교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채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은 지난 2009년 동국대와 기부합병 협정을 맺고 영석고를 동국대에 기부한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학교 법당인 정심원(正心院)을 참배한 뒤, 강태권, 오혜성, 임석균 학생 등 장학생 20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채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학교 기부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몇 년 전에 영석고를 동국대에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노력해 일군 학교를 동국대에 회향한다고 단 순하게 생각했다. 오늘 학교에 와보니 풀 한 포기, 돌 하나, 나무 한 뿌리 모든 것에 설립자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꼈다”며 “설립자의 높은 뜻을 기습에 새겨 임직원 모두가 동국대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영석고등학교를 지역 제일의 명문고등학교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채란 전 이사장은 “내 생애를 바쳐 이룬 학교를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했다”며 “앞으로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도 진지한 불교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염태규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익명 노스님 또 1억

지난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2억원을 기부하며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 익명의 노스님이 또 다시 1억원을 후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지난해 6월 거액을 보시한 노스님께서 또 후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도 한사코 신분을 숨긴 스님은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학교를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음번에는 스님들을 위해 지정명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계영 총장은 “스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10th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동국대 일산병원10주년
슬로건 및 엠블럼 발표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과 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래)이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불교종립병원 건립이라는 불교계 원전인 모임을 기념하고 조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나타낸다는 “고객 만족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과 엠블럼은 앞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된다.

1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사진)도 발표했다.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이란 슬로건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온 열정과 새로운 100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엠블럼은 10주년을 의미하는 10을 조합해 시각화한 것이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겹쳐진 원 모양은 균형과 조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나타냈다”며 “고객 만족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과 엠블럼은 앞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전북, 지역단위 첫 100인 대중공사 출범

금산사 선운사 주도
출·재가 공동위원장
6월14일 1차 공사

한국불교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뜻을 올렸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전라북도 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전북불교도약을 향한 힘찬 향해를 시작했다. 전북지역 대중공사는 종단 차원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교구본사인 금산사와 선운사가 주도해 전북불교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전북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역 사부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답을 찾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출범식에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제17교구 및 24교구 본·말사 스님과 양 교구 신도회장, 지역 시행

단체 대표,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추진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여는 말을 통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그 결과도 좋아 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100인 대중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 사부대중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최초로 전북지역 대중공사가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대중공사 출범식. 신재호 전북지사장 365life@ibulgyo.com

동준비위원장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도 “이번 대중공사는 어떻게 해야 전북불교가 발전할 수 있을지 사부대중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여법하게 구성되어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면 전북불교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서 추진위원장 추대와 함께 100인 대중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추진위원장에는 성우스님과 경우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만수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추대됐다. 집행위원장에는 중앙총회의원인 덕산스님과 선운사 총책특보인 증고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전북지역 100인 대중공사는 금산사와 선운사가 2개월에 한번씩 교대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14일 전북지역 1차 대중공사에서 ‘전북불교 미래를 묻는다’는 주제로 향후 논의할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재호 전북지사장 365life@ibulgyo.com

‘모시기’식 노인복지이제 그만



하정은 기자의
현장에서

tomato77@ibulgyo.com

청년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젊은 계층에서 주로 쓰는 ‘선배’라는 호칭을 붙여 노인 어르신들 ‘선배 시민’이라 칭하면서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들에게 해줄만한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또 종로노인복지관은 ‘신노인시대’를 열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7일 여는 어버이 날 기념행사를, 차려준 음식 먹고 공인 감상하는 기존 이벤트에서 벗어나 콜라텍을 무대로 모든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신명나는 댄스파티로 개최한다는 계획이 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나들이 행사에도 참가비를 받아서 홀몸어르신 보시금으로 돌려주는 등 ‘조용히 모시기’ 복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노인복지로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는 65세다. 예순다섯 살이 되면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각종 연금과 보험금 등 혜택받고 돌려받는 돈도 많다. 하지만 요즘 이 나이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젊고 열정적이다. “나이 여든은 돼야 지하철도 경로사에서 명함을 내민다”는 60대 후반 ‘아주머니’의 말도 의외다.

단순히 얼굴에 주름이 적고 건강하다고 해서 ‘노인’이 아닌 것인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노인이 되고 싶은 방법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노인복지로 변모시키고 있다. 노인 어르신들을 가만히 자리에 앉혀놓고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를 들려주는 경로잔치식 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찬 일을 한다면 노인이라도

쌍계총림 쌍계사 보살계 대법회 및 대장경 정대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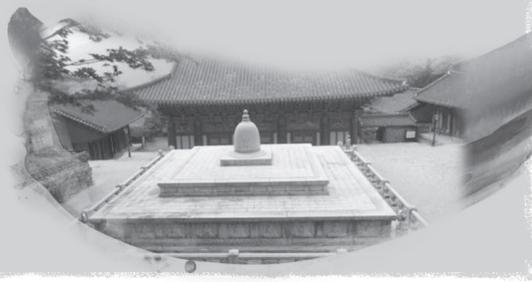
쌍계사는 1300여년 전 삼법·대비 두 스님께서 창건하시고 진감국사께서 중창한 이래, 계맥의 중흥조이신 대은 금담율사께서 전통적인 계법을 전하시던 전법 도량으로서 2015년도 정기 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증명: 고산 혜원 대종사
계사: 전계대화상 보광 성주 대화상
갈마아사리 지하 범용 대화상
교수아사리 일해 덕민 대화상

- 일시: 불기2559년(2015년) 4월 23일(음 3.5) ~ 25일(음 3.7)
- 장소: 쌍계사 금강계단
- 문의: 쌍계사 종무소 055-883-1901~2 / 070-4410-0001~2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원허 효명 합장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Peaceful Mind Harmonious world)

불기2559년(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방장 고산 혜원 대종사
주지 원허 효명
쌍계사 대중스님 외 신도일동

☎ 일시: 불기2559년(2015년) 5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쌍계사 대웅전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총림 쌍계사

